

노영민 “인구 비례 따지면 충북도 1석 줄여야”

(민주당 의원)

■ ‘총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반박 잇따라

“인구 대비 의석수 강원 최대 ... 호남 부각시켜 당대 당 싸움 몰아가” 강운태 시장 “의원정수는 행정구역·면적 등 다양한 조건 감안해야”

총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주장을 놓고 의원 간 선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25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국회의원 의석수’ 관련 발언에 대해 “정략적, 피상적, 비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방식은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선거법에 따른 것”이라며 “정 의원은 마치 한 정당(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정략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이 아닌 강원”이라며 “그런데도 호남을 부각시켜 당대 당 싸움으로 몰아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주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표의 등가성만으로 확정하는 것처럼 접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정 의원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충북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표의 등가성만 기준으로 하면 충북지역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한 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인구 비례로만 따진다면 수도권의 10석이 증가해야 하는 반면 인구 하위 기준(13만8525명)에 못 미치는 보은·옥천·영동은 통합대상 선거구가 돼 충북은 오히려 1석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비수도권 공조를 통해 수도권 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정 의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고 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새누리당 당원조차 동조하지 않는, 총

청권에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조정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구 비례로만 따진다면 수도권 의석은 늘고, 충북지역 의석은 줄게 된다. 노 의원은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늘려야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수도권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부당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오전 열린 시정 간담회에서 “총청권 의석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이해는 한다.

하지만 호남을 몰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호남보다 인구가 조금 많아진 것 가지고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인구로만 따진다면 의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면서 “의원 정수는 관련법을 통해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호남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호남권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외지인 호남으로 이주하면 취직·재난·교육,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출산 장려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등 인구증가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시교육청 9급 인건비조차 편성 안해 혁신학교 확대보다 평가 제대로 해야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12일 광주시의회는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는 9급 행정직 인건비 미편성과 혁신학교, 초·중·고등학교 등 부속기관 예산 편성이 지적됐다. <인건비조차 편성 안해>=정회근(교육의원, 북구)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9급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이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학교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무상교과서 및 지도서 구매 관련 예산이 공립과 사립,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다른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 과소 편성에 의한 비효율적 사업 집행 등이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확대보다 평가부터>=임동호(교육의원, 동·남구) 광주시의원도 이날 “논란이 많은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늘리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혁신학교를 지정하려면 공모를 거쳐 예비학교에 뽑히고 일정기간 운영 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지정형’이라는 편법을 사용, 신실학교를 골라 혁신학교를 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혁신학교 18개교, 예비혁신학교 12개교가 지정·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혁신학교를 34개교로 늘리고, 예비혁신학교도 새로 10개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초·중·고등학교 무리한 확대 안돼>=이은방(민주·북구)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초·중·고등학교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광주시 초·중·고등학교 신청 학생 수는 4573명에 달했지만 시설 부족으로 3274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미수용율이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140실과 돌봄강사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돌봄교실로 전환 가능한 각급학교 유류교실에 대한 실태와 학생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돌봄강사 채용도 지난해와 임금체계가 달라 직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jwpark@kwangju.co.kr

놀리는 국유재산 11만㎡... 관리 허술

이낙연 의원 지적



정부가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놀리고 있는 국유재산 면적이 11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유 국유재산 중 매각도 임대도 하지 못한 공실(空室) 시설이 348곳 11만245㎡에 달했다. 이중 97곳(1천887㎡)은 안전진단 결과,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한 활용 불가 시설로 분류됐다. 또 251개 시설(10만8358㎡)은 현재 매각·임대 공고 중이거나 행정자산 활용을 위해 수요 파악 중인

재산이다. 특히 정부는 공실 기간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실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3만818㎡로 가장 넓다. 경남(2만4천550㎡)과 경기(1만567㎡), 충북(1만800㎡) 등 지역도 국유재산 공실 면적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못된 항만 정책과 예산 확대를 즉각 중지하라” 김재무 의장 광양항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김재무 전남도의회의장(가운데)이 2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부산항 집중 개발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장외마권발매소 건축위 심의 받아야”

황주홍의원 건축법 발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25일 지역민심 분열의 원인이 돼 온 장외마권발매소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마권발매소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서는 장외마권발매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어 그 동안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었다”며 “이에 장외마권발매소도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장외발매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장외마권발매소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예외, 회의장과 같이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항 예산 급감·체선율 전국 최고”

김재무 전남도의회의장, 정부 획기적 지원책 내놔야

전남도의회 김재무 의장은 25일 “정부의 잘못된 항만정책으로 광양항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부산항 올인 정책’으로 인해 광양항의 예산은 불과 5년 만에 20배나

급감했다”면서 “광양항의 지난 3년간 평균 체선율도 국내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5.0%(부산항은 0.34%)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손실비용만도 부산항의 7배인 428억원이며, 이러한 광양항이 군소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는 출범 당시 때만 1조여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 붓고 있어 시설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수차 공언한 만큼, 광양항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규모 영세상인 상권 보호해 달라”

KTX 호남선 개통 경청투어

25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열린 ‘2015년 KTX 호남선 개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시민의견 경청투어에서 참석자들은 주변 재래시장 등 소규모 영세상인의 상권 보호를 강력 건의했다. 강운태 시장의 사회로 송정역 인근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청 투어에서 송정매일시장 상인 배병석씨는 “송정역 주변 매일시장 등 기존 상권이 송정역에 들어서면 대규모 환승센터의 소용돌이에 흡수돼 버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행매 광산구청장도 “송정5일시장 등 골목시장 기능이 쇠퇴하지 않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오래된 송정역 주변이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정비됐으면 하는 게 광산구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2015년이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하계 U대회 개최, 세계디자인비엔날레 등이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의지인 광주를 찾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송정역 주변 개발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 10억(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업
-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 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 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천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10억2천
- * 함평군 영일 칠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을 9억2천
-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의 증축도 가능 33억
-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의 매도 9억6천
-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내대지 587㎡(177)생활주택 허가지역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 북구 두암동 싸우나 건물 대지 101평 건평300평 목욕탕은 직영하고 상가는 보증금 4500만원 월1500선수 은행2억2천 매도 8억
-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소리룸 922평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 임대·매매, 쌍춘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 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지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매수선정대리업체(법인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건평74㎡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건평446㎡ 최저가1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건평73㎡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건평71㎡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건평71㎡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건평72㎡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건평711㎡ 최저가1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건평730㎡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 저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건평794㎡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 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 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